

중국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구 분	단기어학연수생		
성 명	조xx	학번 / 학년	2020xxxx / 3학년
소 속	SCH미디어랩스 (단과)대학		중국학과
연 락 처	E-mail		
파견 대학	안휘중의약대학교		
파견 기간	2023년 6월 26일 ~ 2023년 7월 16일		
<p>본인은 순천향대학교 학생으로서 외국 대학에서 수학한 후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p> <p>붙임 : 1. 단기연수 체험기 1부 2. 기타 첨부 서류(사진)</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7월 23일</p> <p style="text-align: right;">파 견 자 : 조xx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순천향대학교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p>			

※ 단기어학연수 체험기※

1. 인적 사항(전공, 중국어 학습 기간 등)

저는 중국학과 20201320 조승연입니다. 중국어는 어린 시절 싱가포르에 살 때 처음 접하였고 그 후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선택으로 수업시간에 배우고 대학교 전공을 중국학과를 선택하면서 중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웠습니다. HSK4급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 수학 내용(과목, 수업 내용, 수업 방법, 교수, 과제, 평가, 수업 준비 등)

오전엔 중국어수업, 점심시간 후 오후 수업은 문화수업을 하였습니다. 중국어수업은 번갈아가며 하루는 회화 위주인 말하기수업, 하루는 말하기 외에 듣기와 쓰기가 포함된 중국어 수업을 하였습니다. 회화 수업에선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과 단어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유 시간에 돌아다닐 때 유용하게 문장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말하기 위주의 수업에선 매 수업 때마다 문장들을 배워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며 선생님이 그때그때 피드백도 해주시며 고쳐나가고 회화 자신감도 키웠습니다. 발표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선생님의 편안한 리드로 발표를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수업은 매시간 각 수업 주제에 맞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문화를 설명해주셨습니다. 중국 전통 문화, 서예, 중국 전지 예술, 황산 문화, 그림, 중국 국화, 검보 그림을 실습하고 배웠습니다.

나뉘어져있는 중국어 수업에 따라 두 권의 책이 배부되어 해당 수업에 맞춰 교재를 준비해 학교에 갔습니다. 과제는 문화수업은 없었고 중국어 수업은 항상 복습이 숙제였습니다.

말하기 수업의 평가는 자기소개, 하루 일과를 설명하는 두 가지 주제 중 한 가지 선생님이 랜덤으로 선정하여 말하는 것과 파트너와 함께 물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각각 역할을 맡아 선생님 앞에서 상황극하는 것이었습니다. 듣기와 쓰기는 그동안 배웠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성조, 운모의 발음을 듣고 선택지에서 선택하는 것과 한글문장을 번역하여 작문하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평소 수업 참여를 열심히 했다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시험이 나왔습니다.

1. 교통(학교에서 주요 장소로의 교통, 시내 교통 등)

학교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딱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택시도 정말 잡히고 택시 기사님들도 너무 착하셔서 가고자하는 목적지의 주소만 가지고 있다면 택시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묵었던 숙소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걸어가기에 적당하였고 학교가 끝나고 도보로 몇 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깨끗하고 큰 백화점에서 점심과 저녁도 쉽게 해결 가능했습니다. 정해져 있는 일정들은 학교 관계자 선생님들과 가이드 분과 함께 다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1. 학교 안내(수학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우리 대학과의 상이점, 학교 규모 및 시설, 면학 분위기 등)

제가 수학한 안휘중의약대학교는 중국 전통 의학의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신캠퍼스와 구캠퍼스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대학교입니다. 우리 학교와 달리 복도마다 있는 놓아져 있는 여러 개의 책상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책상마다 여러 권의 책이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 노트를 만들어서 계단, 복도 어느 곳에서도 외우고 있던 학생들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이 살짝 냄새가 나고 어둡고 청결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1. 환경(위치, 학교 주변 환경, 기후 등)

제가 주로 수업을 들었던 구캠퍼스 주변은 썩신칭이라는 먹거리가 풍부하고 에어컨 바람이 빵빵하며 볼 것이 많았던 백화점이 있고 여러 개의 중국 은행과 길거리 음식가게들이 있었습니다. 휴지가 없는 화장실이 대부분이어서 휴지나 물티슈를 챙겨 돌아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와 차들이 서로 빨리 가려고 빵빵 거리기 때문에 항상 길을 다닐 때나 신호등을 건널 때 주위를 둘러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연수했던 6.26~7.16은 하루하루 너무 뜨겁고 더운 날씨의 연속이었습니다. 습한 기후는 아니었지만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체감온도는 항상 40도 이상이었고 그날에도 바람이 불지 않아 땀이 물처럼 흘렸습니다.

1. 숙소(시설, 규칙, 분위기, 유의사항 등)

제가 묵었던 숙소는 Ji Hotel Hefei Anhui Medical University였습니다. 로비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직원 분들이 계셨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맞이해주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주변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키면 배달도 빨랐지만 로봇이 음식 배달을 직접 방까지 해주는 재미있는 경험도 했습니다. 아침마다 조식을 먹었는데 메뉴 구성도 만족스러웠고 호텔 4층의 식당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청소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점과 빨래할 수 있는 세탁기가 단 2대뿐이어서 다른 손님들과 시간이 겹치지 않게 신경을 써야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숙소에 묵을 것이라면 수건 2장 정도는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음식(학교 식당 이용, 학교 주변 식당 현황, 가격 등)

중국어를 실생활에 직접 이용해보고 회화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 수업 끝나고 점심시간에 백화점 안 음식점이나 주변 가게에서 수업 시간 때 배웠던 표현들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음식은 한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향신료 향과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이 대부분이어서 중식을 먹다가도 한식과 일식, 양식도 섞어서 먹었습니다. 신기한 점은 중국은 기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름에도 뜨거운 물을 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더운 날씨에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점차 익숙해지기도 했고 실제로 음식을 먹고 뜨거운 물을 마시면 속이 더 편해진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부분 먹고 난 후 스스로 정리하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놓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썩신칭-6층 장어덮밥 78위안>

미술랭 선정이 된 곳인 만큼 너무 맛있었던 곳이다. 장어 덮밥과 치킨이 같이 있던 메뉴였는데 양념도 밥도 너무 만족했던 곳이다. 중식의 마라 맛에 질렸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썩신칭-지하1층 완탕국 18위안>



사진은 너무 맛없게 찍혔지만 간단히 요기정도로 해결하기 딱 좋았던 곳이다. 새우완탕이 너무 맛있었고 국물도 깔끔하게 먹었던 곳이다. 완탕 처음 입문으로 딱이다. 직원분이 너무 귀엽고 착했다. 음식 받을 때 번호를 불러주니까 숫자 공부는 필수로 하고 가야한다.



<뜨신청-6층 스키야키 두명이서 276위안>

가격은 꽤 나가지만 무한리필 집처럼 고기와 야채 음료수 모두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어서 정말 배가 꽉 차게 먹고 나왔다.



<뜨신청-지하1층 태희네부대찌개 33위안>

한식이 너무 그리워서 지하 1층을 둘러보다 반가운 한국어를 보고 들어갔던 곳이다. 비빔밥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맛있었고 라면도 신라면으로 매콤하게 잘 먹었다. 하지만 라면이랑 세트에 있던 음료와 김밥 같은 거는 너무 맛없었다. 그리고 가게가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너무 더운 날엔 바람이 잘 안 통해서 너무 더운 날씨에는 뜨거운 음식은 피해서 먹는 곳이 좋다.



〈쯔신청-7층 한국관 삼겹살 106위안〉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어서 간 곳인데 여기도 대만쪽이었다. 삼겹살과 밥, 음료수 모두 합해서 106위안이 나왔다. 처음에 단호박 죽을 서비스로 주는데 물어보니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대답해드리면 된다. 아래 사진은 두 번째 갔을 때인데 팽이버섯에 쌓인 소고기가 진짜 맛있어서 혹시 간다면 추천한다.



〈쯔신청-지하1층 마라탕 26.58위안〉

중국의 마라탕은 기름기가 많을 까봐 사골국과 섞는 우리나라 맛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고 이질감 없던 맛에 되게 놀랐다.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적으로 최고의 식사였다.

〈쯔신청-휘귀 약 220위안〉

하이디라오도 가보았지만 여기 휘귀가 가깝고 너무 맛있었던 곳이다. 토마토탕과 백탕을 시켜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뜨신청-1층 나유키 19위안〉

너무 좋았던 음료였다. 가장 많이 사먹었던 음료인 포도 주스이다.



8.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제도(담당 부서, 담당자, 제공 시설 등)

한국에서부터 인솔담당해주신 차선생님과 현지에서 통역과 마지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같이 소화해주신 황선생님 덕분에 안전하고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관계자분들도 저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성실히 대답해주시고 열심히 가르쳐 주신 중국어 선생님들과 문화 선생님들이 계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정해진 여행도 가이드 분들의 열렬한 문화 설명과 안정적인 통제와 시간 조율 모두 완벽했습니다.

호텔 직원분들도 중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소통에 지장이 있어도 끝까지 해결해주려 같이 힘써주셔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1. 소요 경비(현지 물가, 항공료, 공공 요금, 총 소요 경비 등)

항공료, 비자 발급 비용과 보험료까지 다 합해서 약 70만원 정도였습니다. 예치금은 20만원이었습니다. 출국 전, 저에게 중국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20만원 넘게 소비하였고 유심은 5만원이었습니다. 생활비는 현금은 40만원 정도를 환전하였고 알리페이에 등록된 카드에 30만원을 넣었습니다. 기념품들을 살 때 빼고는 허페이시의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싸서 크게 돈을 쓴 적은 없었습니다. 총 185만원의 경비를 소요하였습니다.

1. 문화 체험 및 기타 개인 관광

문화 체험은 점심 시간 후 2시 30분부터 시작했습니다. 황산 문화에 대해서 황산 가이드님이 오셔서 설명해주셨고 서예와 중국 전지 예술, 검보 그림 등 선생님이 오셔서 그 유래에 대해서 설명해주셨고 직접 실습도 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한명씩 직접 봐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시며 재미를 더해해주셨습니다.

3주간의 중국단기어학연수 중에 2번의 여행 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엔 상하이로 갔습니다. 기차 2시간 30분정도를 타고 가서 동방명주와 난징루, 와이탄의 경치를 구경하였고 둘째 날엔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땀병에 3시간 가까이 입장하는데 대기하느라 시작부터 진을 뺐지만 재밌는 놀이기구와 먹거리 특히, 마지막 조명 쇼는 비가 많이 쏟아져 정신없던 하루에 짐을 다 녹아버릴 만큼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엔 상하이 가이드님께 이동 중에 상하이 사투리도 배워보고 30년대에 지어진 건물과 여러 대저택들을 구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주인 황산을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2시간 30분을 이동하여 홍천 마을 구경하였습니다. 정말 낭만적인 광경이 펼쳐졌는데 미술 학원 학생들이 호숫가에 둘러앉아서 각자 풍경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장면이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날엔 황산을 등산했습니다. 비가 축축이 오기도 하고 가파른 계단의 향연이어서 굉장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정상에 올라서는 무엇인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고 푸릇푸릇한 예쁜 경치가 예뻐습니다. 주변 옛 거리도 밤에 둘러보았습니다.

기타 개인 관광: 1912거리, 리우지에거리, 완다몰, 야시장거리

1. 출국 전 준비해야할 사항(반드시 소지해야할 것 등)

출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여권, 돈, 유심, 필요한 앱 미리 깔아놓기, 짐은 적당히 싸기, 우산(양산), 비상약들입니다.

여권은 관광지 관광할 때면 꼭 신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권을 잘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기차로 이동할 때나 비행기를 이용할 때에도 꼭 필요하니 여권을 항상 잘 보관해야 합니다.

중국엔 현재 화폐와 카드를 이용한 결제수단보다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수단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돈을 환전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핸드폰 오류나 안 받는 곳도 있을 수는 있으니 조금은 환전해야합니다. 식당에서도 qr코드를 이용해 메뉴를 보고 바로 결제까지 하는 곳이 많습니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꼭 활성화시키고 미리 카드를 등록하고 가면 편합니다. 실제로 중국에 있는 3주동안 알리페이보단 위챗페이를 더 잘 이용하니 위챗페이를 먼저 카드를 등록하는 것을 도전해보고 안된다면 알리페이에서라도 카드를 등록 시켜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유심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와이파이 이용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중국 현지 전화번호가 없다면 이용이 불가합니다. 저는 매일 3GB씩 들어오고 다 쓰면 느린 데이터가 무제한 이용 가능한 요금제를 사용했는데 데이터 이용은 버퍼링 없이 잘 되었고 쓰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은 여러 제한된 앱들이 있기에 알리페이나 위챗, 장소 찾기에 유용하게 쓰이는 고덕지도, 택시 잡는 앱인 didi을 한국에서 팔고 방법을 익혀놓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물품들은 중국에서도 파니까 기념품 살 것을 미리 대비해서 짐은 적당히 싸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직접 갔다 오고 가장 크게 느낀 것입니다. 옷과 물품들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기념품들을 많이 살 수가 없었는데 미리 물품들을 사서 가서 편리한 점도 있었지만 중국에도 똑같이 필요한 물품들이 다 있으니 정말 필요한 물건들만 싸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어학연수 다녀온 6,7월은 너무 덥고 비 소식도 간간히 있어서 우산 또는 양산을 챙겨서 비 맞는 것을 보호하고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 같은 것은 중국에서는 구하기 힘들 수 있으니 본인에게 필요한 약들은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1. 귀국 준비 시 유의 사항

캐리어는 지켜야할 무게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당일 집합하기로 한 시간 준수하고 기내용과 수하물에 넣어야할 물건 헛갈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짐을 싸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건의 사항

없습니다.

1. 차기 단기연수 학생을 위한 제언

중국어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처럼 중국 관련 학과가 아니어도 중국어를 배워 본 적이 없어도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지원해보면 좋겠습니다. 중국어를 못해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알려주고 차근차근 설명해주시니까 겁먹을 필요 없이 과감히 지원하면 됩니다. 몰라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알아 가면 되니까 질문하고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몰랐던 중국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는 것은 경험해보고 중국을 배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삶의 터전이었던 한국에서 벗어나 넓은 대륙에서 새로운 세상을 알아보고 직접 타지에서 소통하며 부딪혀보면서 얻는 인생의 맛을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중국어, 중국 문화 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1. 단기어학연수에 대한 소감 및 평가(*자세히 작성)

유난히 내성적이었던 저를 깨부수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자 지원했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면접관님들께 닿았는지 다행히 합격해서 단기어학연수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단체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일정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하였습니다.

현지에서 도착했을 때는 기본 중국어 실력이 있었지만 그 전에 사람을 무서워하다보니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본 표현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손짓으로만 소통하였습니다. 신캠퍼스 구경 간 날에도 같이 간 친구들과 학교 관계자 선생님들 앞에서 자기소개 발표하는 것도 너무 떨었고 그럴수록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고 처음 도전했던, 다짐했던 그 마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온 친구들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열정을 옆에서 느끼면서 잘되지 않아도 생각처럼 잘 흘러가지 않더라도 '같은 사람이니까 마음이 통한다면 해결해갈 수

있겠지'라는 마인드로 밀고 들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중국어 수업도 열심히 듣고 중국인 선생님들의 친절하고 설명과 친구들의 편안한 분위기 조성으로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도 편안히 느껴지게 되었고 자신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서툰 발음으로 끝까지 소통해보려 노력해보기도 하였고 번역기를 돌려가며 말로 직원 분들과 문제 해결도 해보면서 성장해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기회를 주신 제 부모님과 면접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주간의 단기어학연수 기간 동안 중국어 실력 향상과 중국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여행 일정으로 중국 관광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도전과 노력만 한다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많이 얻어갑니다. 그리고 같이 좋은 자극이 되어주었던 함께 어학연수 떠났던 친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학기 동안 필요한 자격증도 따고 봉사도 하고 대외활동도 하는 계획을 세우며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다짐을 하며 열심히 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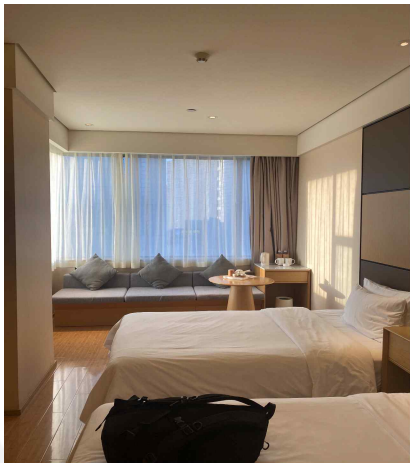
1. 사진 첨부(현지 생활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

-상하이 여행





-황산 여행



-허페이 길거리와 묵었던 숙소





중국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구분	단기어학연수생		
성명	최xx	학번 / 학년	2019xxxx / 4학년
소속	글로벌경영(단과)대학 관광경영학과		
연락처	E-mail		
파견 대학	안휘중의약대학교		
파견 기간	2023년 6월 26일 ~ 2023년 7월 16일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학생으로서 외국 대학에서 수학한 후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 1. 단기연수 체험기 1부
2. 기타 첨부 서류(사진)

2023년 7월 23일

파견자 : 최xx (인)

순천향대학교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 단기어학연수 체험기※

1. 인적 사항(전공, 중국어 학습 기간 등)

저는 관광경영학과이고 글로벌경영대 소속이기 때문에 언어선택이 필수입니다. 저는 중국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4학년이지만 중국어 학습 기간이 3년이라고 하긴 그렇고 거의 초급 수준이었습니다.

1. 수학 내용(과목, 수업 내용, 수업 방법, 교수, 과제, 평가, 수업 준비 등)

회화 수업과 강독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둘 다 9시부터 4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형식으로 총 3교시를 진행하여 11시 40분에 수업이 끝났습니다. 저는 수업을 몇 번 빠지게 되어 과제가 있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출석한 수업에서는 따로 과제는 없었습니다. 수업 내용은 초급 수준이지만 중국어를 아예 처음 접하는 분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주로 본인 및 가족소개, 하루 일과 소개, 물건을 사고 팔 때의 상황 정도를 배웠습니다. 평가는 강독은 쓰기로 회화는 말하기 평가였습니다. 난이도는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복습만 한다면 문제없이 통과될 정도입니다. 교수님 두 분 다 수업할 때 영어를 섞어 사용하시고 소통이 가능하셔서 중국어를 아예 못하는 친구들도 수업을 듣는 데에 큰 무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점심 시간 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문화체험수업을 하였는데 경극가면 만들거나 서예 같은 중국전통문화 위주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1. 교통(학교에서 주요 장소로의 교통, 시내 교통 등)

택시 기본요금이 1800원으로 아주 저렴한 편이어서 저와 친구들은 버스나 지하철은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고 택시만 타고 다녔습니다. 정말 멀리 가는 거 아니라면 친구들과 함께 택시로 타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1. 학교 안내(수학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우리 대학과의 차이점, 학교 규모 및 시설, 면학 분위기 등)

중의약대학교여서 그런지 첫 날 학교 구경을 했을 때 약재가 다양하게 많았고 중의약쪽으로 특화가 잘 되어있다고 느꼈습니다. 학교 규모는 수업하는 강의실만 가느라 잘 모르겠고 한 가지 불편한 점은 화장실이 좌식 변기이고 청결도가 높지 않아 화장실 가기가 꺼려졌습니다. 저희가 수업할 당시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설도 우리 대학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환경(위치, 학교 주변 환경, 기후 등)

학교 위치는 숙소와 걸어서 15분 정도인데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4명의 친구들과 택시타고 다녔습니다. 온도는 비가 오지 않으면 평균 32~33도 정도였고 체감온도는 42~43도였습니다. 비는 많이 안 왔습니다. 3주 동안 허페이에는 하루 이틀 정도만 왔습니다. 학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백화점이 있어서 점심시간이나 학교 끝나고 밥도 먹고 놀기도 하였습니다.

1. 숙소(시설, 규칙, 분위기, 유의사항 등)

허페이 숙소는 정말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넓고 조식도 맛있었습니다. 통금은 10시까지였고 직원 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좋았습니다. 제가 발을 다친 상태였는데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친절하게 배려해주셔서 허페이 숙소에서는 좋은 기억들만 있습니다. 다만 세탁기가 2대라서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그래도 못 돌려서 옷을 못 입는 정도는 아닙니다. 상하이에는 못 갔고 황산 숙소는 2개였는데 첫 번째도 좋았고 두 번째 숙소가 정말 좋았습니다. 조식도 종류가 많고 맛있었습니다. 숙소 바로 맞은 편에 편의점도 있습니다.

1. 음식(학교 식당 이용, 학교 주변 식당 현황, 가격 등)

저희는 주로 백화점인 之心城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가격은 싸면 5~6000원 비싸면 12000원 정도였습니다. 백화점 6층에 있는 휘귀집이 가성비도 좋고 정말 맛있으니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6~7만원 나오는 정도가 여기서 배터지게 먹어도 12000원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애들은 하이디라오보다 맛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을 때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백화점이 좀 비싼 편이고 그냥 음식점들은 더 싼 것 같습니다. 첫 날 그냥 들어간 가게는 3000원 정도로 국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1.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제도(담당 부서, 담당자, 제공 시설 등)

황선생님께서서는 한국어로 소통이 잘 되셨기 때문에 문제 없었습니다.

1. 소요 경비(현지 물가, 항공료, 공공 요금, 총 소요 경비 등)

현지 물가는 저렴한 편입니다. 항공료는 53만원이었고 비자 발급 비용이 12만원이었습니다. 총 소요 경비는 기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8~9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절약 안 했는데도 이 정도인 거보면 아끼고자 하면 경비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문화 체험 및 기타 개인 관광

상하이는 못 갔지만 디즈니랜드와 동방명주 등을 갔다고 들었습니다. 디즈니랜드 입장권만 거의 1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학교에서 다 지원됩니다. 3일 동안 문화 체험하며 교통비나 동방명주 입장료, 식사 등도 다 지원됩니다. 3일 동안 군것질을 한다면 기념품을 사는 거 빼면 다 지원됩니다. 황산에서의 3일도 다 지원됩니다. 황산 첫 날에는 홍춘이라는 마을에 갔는데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황산 가이드 선생님께서 한국어가 유창하셔서 설명 듣기도 좋았습니다. 둘째 날에 황산을 등반하였는데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꼭 한 번쯤 경험해보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날에는 황산 옛마을 같은 곳에 갔습니다. 황산에서 3일 내내 밥도 맛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허페이 핫플 같은 곳에 갔었는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예쁘고 한국 핫플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1. 출국 전 준비해야할 사항(반드시 소지해야할 것 등)

OOOOO...

1. 귀국 준비 시 유의 사항

귀국 전 준비 시에 학교에서 공지가 많이 오는데 공지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티 때와 공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공지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핸드폰 유심을 따로 사갔었는데 이심으로 한 친구가 더 저렴하고 데이터도 더 잘 났습니다. 이심 추천 드립니다.

1. 건의 사항

건의 사항은 딱히 없습니다.

1. 차기 단기연수 학생을 위한 제언

저는 연수 시작하고 2일 만에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병원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저의 부주의 때문에 중국에서 안후이중의약대학 관계자 분들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며 도움을 주셨고 한국에서도 순천향대학교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만 상하이 문화 체험에 못 가게 되었고 혼자 허페이에 남겨졌지만 안후이중의약대학 선생님 분들께서 같이 밥도 먹어주시고 다양한 곳도 데려가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고에 유의하시고 여권과 귀중품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개인여행이 아닌 단체이기 때문에 나의 부주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선생님 분들과 같이 간 친구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기어학연수 3주가 저에게는 최고의 추억이자 경험이었습니다. 상황은 도와주지 않았지만 허페이에서, 황산에서 친구들과 쌓은 다양한 추억들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모든 인연이 저에게 소중한 인연이 되었고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중국어 향상을 목표로 하신다면 현지인들과 중국어로 더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번역기 대신 한 마디라도 직접 말해보려고 노력하신다면 한 단어라도, 문장이라도 기억에 남으실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재학 동안 이 단기어학연수는 꼭 가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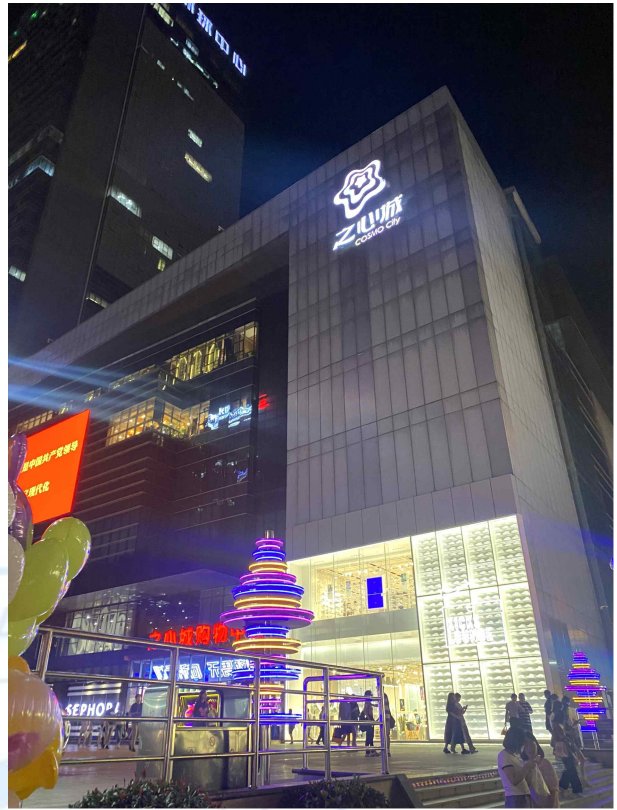
1. 단기어학연수에 대한 소감 및 평가(*자세히 작성)

위에 말했듯이 다양한 사건사고들 때문에 처음에는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었지만 감사하게도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연수를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주 동안 호텔도 좋았고 선생님 분들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학생들 중국어 수준의 편차가 커서 수업 내용이 누구에게는 너무 쉽고 누구에게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주 동안 중국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은 앞으로 저에게 추억으로 또 교훈으로 평생 남을 것입니다. 중국어가 드라마틱하게 늘진 않았지만 한국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사용해보고 현지인들이 정말 자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와서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보니 식견이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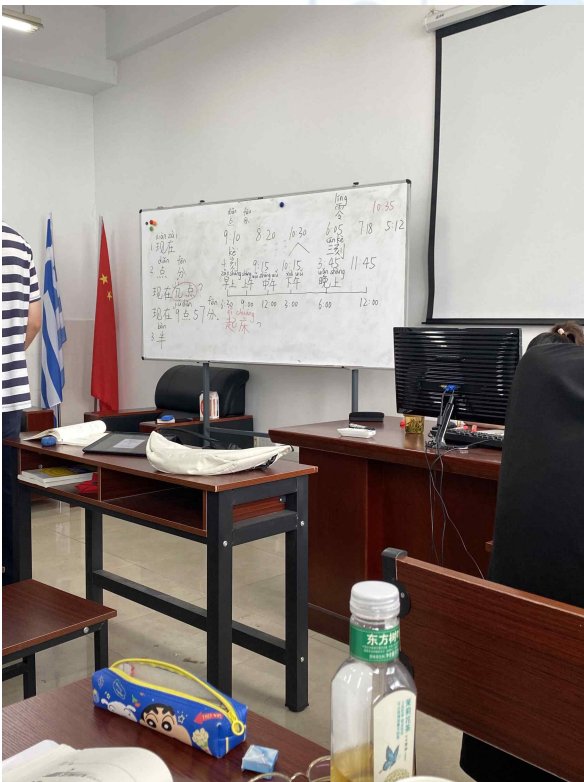
1. 사진 첨부(현지 생활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



<허페이 숙소>



<숙소 근처 백화점>



<학교 강의실>



<학교 복도>

중국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구분	단기어학연수생		
성명	한xx	학번 / 학년	2019xxxx / 4학년
소속	글로벌경영대학 관광경영학과		
연락처	E-mail		
파견 대학	안휘중의약대학교		
파견 기간	2023년 6월 26일 ~ 2023년 7월 16일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학생으로서 외국 대학에서 수학한 후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 1. 단기연수 체험기 1부
2. 기타 첨부 서류(사진)

2023년 7월 22일

파견자 : 한xx (인)

순천향대학교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 단기어학연수 체험기※

1. 인적 사항(전공, 중국어 학습 기간 등)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경영학과 20192694학번 4학년 한소희입니다. 중국어는 대학교 입학 후 1학년 때부터 학습하였으나, 거의 매번 초급반 강의를 수강했었습니다. 이마저도 학기 중에만 공부하고 방학 때는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터라, 학습 기간에 비해 실력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니다. 아는 단어 몇 개 정도는 한자로 적혀있으면 뜻을 파악할 수 있지만, 회화 실력은 유치원생만도 못합니다.

1. 수학 내용(과목, 수업 내용, 수업 방법, 교수, 과제, 평가, 수업 준비 등)

회화와 강독 수업이 진행되었고, 각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달랐습니다.

제가 단기어학연수에 참여했던 때는 같이 갔던 학생들 사이의 중국어 실력 수준 차이가 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업은 “나, 너, 우리” 등 기초수준의 단어부터 시작해, “우리 가족은 4명입니다”같은 간단한 내용까지 배우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과제는 3주 동안 총 2번 정도로 매우 적었습니다. 게다가 교재 내 문제를 풀어온다거나, 수업 때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자기소개를 준비해오는 등 부담 없이 수행이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니다.

다만, 중국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학생이라면 이런 간단한 내용의 수업 및 과제여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국어는 우리말과 어순도 다르고, 복잡한 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조까지 고려해야 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에 가기 전, 기초적인 내용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미리 학습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또, 학교에서 교재를 나누어주기 때문에 필통과 얇은 노트 이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할 건 없습니다.

1. 교통(학교에서 주요 장소로의 교통, 시내 교통 등)

학교 및 숙소 주변과 시내 모두 교통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에 비해 택시비가 아주 저렴해서, 장소 이동 때마다 거의 매번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버스나 전철은 단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택시는 도로 앞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기사님께서 보시고 바로 앞에 멈춰주십니다.

1. 학교 안내(수학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우리 대학과의 차이점, 학교 규모 및 시설, 면학 분위기 등)

우리 대학의 캠퍼스 시설보다는 좋지 않은 편이지만, 3주 내내 같은 교실에서만 수업하였고 에어컨을 항시 가동해주신 덕에 불편함 없이 수업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화장실의 위생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모두 재래식 변기이고, 내부는 조금 어두운 편이며, 화장실 내엔 휴지나 비누가 없습니다. 다들 학교에서는 웬만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서, 등교 전 호텔에서 해결하고 왔습니니다. 또, 당시 현지 대학생들의 시험 준비기간이었던 덕에, 복도에까지 나와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며 일종의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환경(위치, 학교 주변 환경, 기후 등)

숙소에서 학교까지는 도보로 편도 약 20분 정도로 가까운 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여름 더위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제가 갔을 시기에 중국이 전 세계 국가 중 최고 기온이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낮 기온이 평균 35도고 체감온도는 40도를 넘어갔을 만큼,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더워 친구들과 함께 매일 택시를 타고 등교했습니다. 숙소 바로 앞 도로에 택시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바로 탈 수 있고, 기본금액인 10위안(한화 약 1800원)이어서 3주 내내 타고 다녔는데도 인당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3~4명을 모아 다 같이 택시를 타고 등교하길 권장합니다.

1. 숙소(시설, 규칙, 분위기, 유의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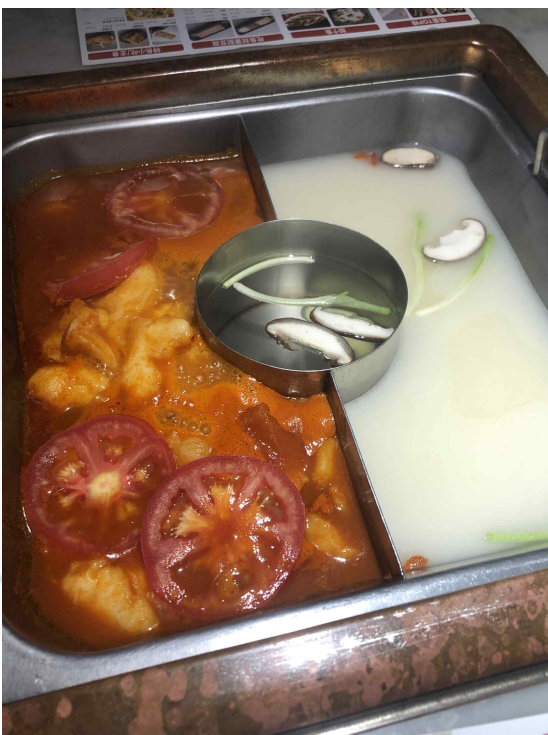
숙소 시설 매우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프런트 직원분들도 매우 친절하십니다. 다만 수건을 일주일에 한 번 교체해주시기 때문에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텔 내 세탁기가 매우 오래된 것이었고 2대 밖에 없어서 매번 세탁기 경쟁이 치열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기 며칠 전에 새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건조기도 새로 생겨서 차후 어학연수 시 이 부분은 문제없을 듯합니다.

1. 음식(학교 식당 이용, 학교 주변 식당 현황, 가격 등)

첫날, 숙소 바로 앞에 있는 로컬식당에서 한 끼를 해결했다가 너무 맛이 없어서 충격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무조건 학교 근처 백화점에서 식사했습니다. 백화점 내에는 맥도날드, KFC 같은 패스트푸드부터 시작해서 일식당, 한식당(냉면, 김밥, 비빔밥, 삼겹살, 김치볶음밥, 부대찌개, 치킨 등등), 마라탕, 휘귀, 여러 디저트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한식당은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그래도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패스트푸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마라탕과 휘귀는 한국에서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입니다.

다음은 현지에서 갔던 수많은 식당들 중 가장 맛있었고, 호불호가 갈리지 않았던 곳들입니다.

<1. 新辣道鱼火锅-之心城店>



현지에서 먹었던 휘귀 중 최고였던 곳입니다! 마지막날 중국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가게에서 마지막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하이디라오보다 이곳이 몇 배는 더 맛있습니다!

<2. 东北王铁锅炖东北菜-至美大厦店>



허폐이는 남방지역이기 때문에, 북방요리인 껌바로우를 파는 가게가 거의 없습니다. 이 가게는 안휘중의약대학교 원장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나름 숨은 맛집입니다. 껌바로우가 정말 맛있는 나머지, 5명에서 가서 껌바로우만 4점시를 주문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합니다. 단, 주문할 때 꼭 고수를 빼달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不要香菜)

<3. AK.Lab 阿卡样风-之心城店>



학교 인근 백화점인 쯔신청 내 한국식당입니다. 같은 건물 지하에 또 다른 한식당 '태희네'가 있는데, 그곳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중국에선 한식이 외국 음식인 만큼, 가격은 다른 식들에 비해 좀 더 나가는 편입니다.

<4. 大釜烤肉>



썬신청 바로 옆 상가에 위치한 한식당입니다. 중국인 친구가 맛있는 곳이라며 데려가 주었는데, 한국에서 먹는 삼겹살 맛 그대로입니다.

<5. 张胜和小笼汤包(摩尔广场店)>



샤오롱바오 맛집입니다. 또, 가게 바로 옆에 규모가 꽤 큰 마트가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과자 종류가 다양해 기념품 사기에 좋습니다.

1.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제도(담당 부서, 담당자, 제공 시설 등)

서비스제도는 감동할 정도로 매우 잘 되어있습니다. 3주 동안 저희를 담당해주신 현지 선생님께서는 모르는 것을 여쭙볼 때마다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호텔 직원분들도 저희가 중국어를 잘 못 한다는 점을 고려해 번역기를 사용해 대화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식당, 카페 메뉴판에는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조차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꼭 번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가시길 바랍니다.

1. 소요 경비(현지 물가, 항공료, 공공 요금, 총 소요 경비 등)

먼저 기본적인 비용은 항공료는 왕복 53만 원, 비자 발급비 12만 원, 단체 보험 가입비 3만 8천 원, 예치금 20만 원(추후 반환)이었습니다. 또 별도로 유심 구매 비용 38300원,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추가 비용 11900원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장에 한국 돈으로 정확히 95만 원을 입금해놓고, 3주 내내 현금 없이 알리페이로 결제했습니다. 상해와 황산으로 문화체험을 갈 때마다 자석이나 부채, 키링 같은 기념품들을 많이 구매했고, 매일 외식을 했으며, 술도 자주 마셨습니다. (참고로 중국 현지는 의류가 생각보다 비싸고, 식당 및 카페는 한국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기념품도 캐리어 한쪽이 가득 찰 정도로 라면, 과자, 휘귀 소스, 인형 등 이것저것 다양하게 샀습니다. 그 결과 귀국일 잔액을 확인해보았을 때 약 3만 원 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비용은 약 186만 원입니다. (예치금 제외 166만 원)

어차피 중국은 현금이 필요 없어 환전을 안 해도 되므로, 이왕이면 넉넉히 챙겨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1. 문화 체험 및 기타 개인 관광

학교에서 진행한 문화 체험의 종류는 중국 전통 매듭 공예, 서예, 전지 공예, 중국화 부채, 전통 가면 만들기 등 다양했습니다. 매번 현지 학생이나 선생님께서 오셔서 PPT를 기반으로 간단한 안내를 해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봐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안휘중의약대학교 원장 선생님께서 저희를 위해 특별 문화 체험 시간을 마련해주셨습니다. 그 덕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중국의 옛 교실을 구경하고, 전통 복장을 입어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직접 꽃잎을 빻아 예쁜 향낭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에 그런 의미 있는 체험을 해 볼 수 있어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개인 관광으로 많은 곳을 가보았는데, 그 장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허페이에는 학교 근처 백화점 말고도 정말 다양한 관광지,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중국까지 가게 된 만큼, 여유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개인 관광지>

- 허차이 1972(合柴1972)
- 술잔길 (罍街)
- 1912 거리 (1912街区)
- 허페이 야생 동물원 (合肥野生动物园)

- 완다광장 (万达广场)
- 회하로 보행자 거리 (淮河路步行街)

1. 출국 전 준비해야 할 사항(반드시 소지해야 할 것 등)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입니다. 여권은 중국으로 갈 때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상해로 이동 시에도 꼭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외국인인 우리들의 신분증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지낼 때 여권은 캐리어에 안전하게 넣어두세요.

또 하나는 USIM 또는 eSIM입니다. 중국 내 와이파이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검색하거나 번역기를 사용하고, 지도를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써야 합니다. 로밍보다 더욱 저렴하니, USIM이나 eSIM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알리페이와 위챗입니다. 위챗은 현지에서 선생님 및 가이드님과 연락하기 위한 어플입니다. 또 현지에서 지내다 보면 중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될 텐데, 그 친구들은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챗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알리페이는 결제할 때 무조건 필요합니다. 중국은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모든 걸 QR코드로 해결합니다. 이때 외국인은 위챗페이를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알리페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꼭 미리 알리페이를 설치 및 가입해두세요.

고덕지도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지도 어플입니다. 구글지도보다 고덕지도가 훨씬 정확하고 더 많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입니다. 여름철 중국의 햇빛은 매우 강렬해서, 밖에 잠깐만 나가도 땀이 나고 두피가 심하게 뜨거워집니다. 길거리 사람들도 양산을 꼭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 귀국 준비 시 유의 사항

여권은 꼭 캐리어에 넣지 말고 기내용 가방에 소지하세요! 또, 귀국일까지 절대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실제로 같이 갔던 친구 중, 중국에서 여권을 분실해 상해에 가지 못했고, 긴급여권을 발급받느라 고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기념품을 마지막 날 한 번에 몰아서 샀다가 캐리어의 여유 공간을 가늠하지 못해 다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씩 사고, 그때마다 캐리어를 정리해두세요.

1. 건의 사항

건의 사항은 없습니다.

1. 차기 단기연수 학생을 위한 제언

어쩌면 인생에 있어 한 번뿐인 소중한 경험이고 시간인 만큼, 중국에 가기 전 본인의 목표나 계획을 세워보세요. 또, 미리 정보를 찾아보고 간다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만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연락을 이어가 보세요. 저는 실제로 중국에서 정말 다양한 경로로 중국인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단골 휘귀집에서 먼저 제 연락처를 물어봐 주었던 아르바이트 여동생, 안휘중의약대학교 원장님의 아들, 샵에서 저에게 네일아트를 해주었던 언니, 호텔 앞 편의점 동갑내기 아르바이트생, 문화교류 때 일일 선생님이로 왔던 현지

학생들 등등. 한국에 돌아온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잠깐의 인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인연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그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또 노력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고, 알찬 단기어학연수 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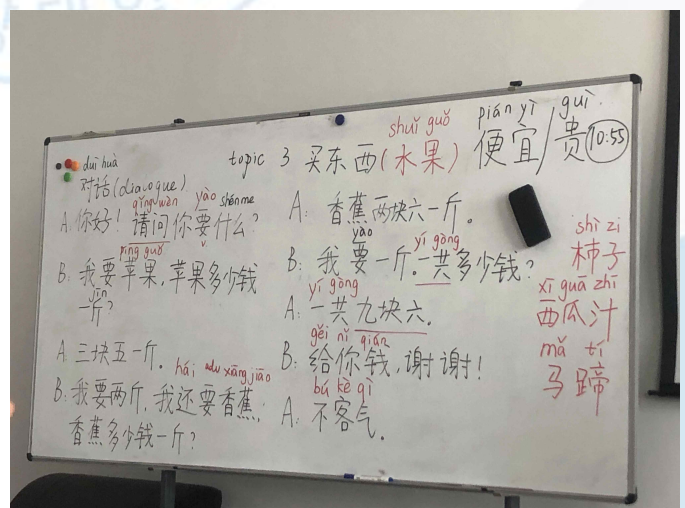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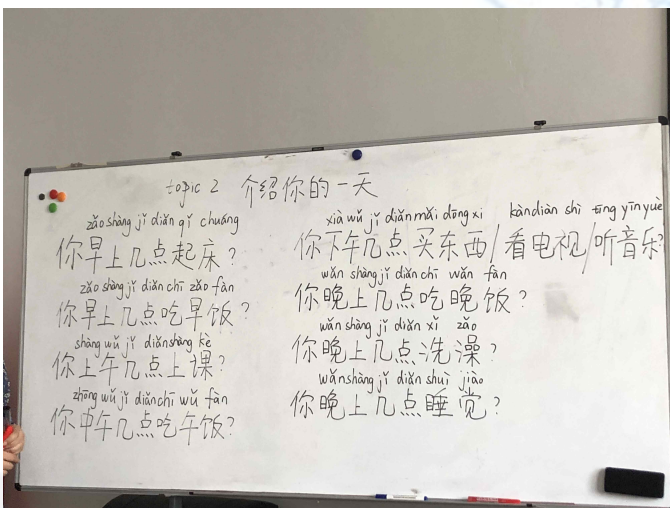
1. 단기어학연수에 대한 소감 및 평가(*자세히 작성)

이번 중국 단기어학연수는 제 인생에 있어 정말 행복했던 기억으로 손에 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생활을 많이 못 한 게 아쉬워 졸업을 앞두고 급하게 신청했었고,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 가보는 게 처음이라 기대되는 마음 한편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어를 공부해오긴 했으나 실력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고, 특히 현지인들의 발음과 빠른 속도를 과연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 너무 친절했고, 어학 수업 때 배웠던 단어 및 표현을 응용하니 날이 갈수록 소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교에 다니며 조금이나마 쌓아왔던 중국어 실력을 직접 체감해볼 수 있었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한단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더불어 중국에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경험을 쌓고자 하는 마음으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밖으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이 들긴 했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의 3주간 기억은 앞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것이고, 두고두고 추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욱 향상된 실력을 갖춰 또 한 번 중국, 허페이에 가고 싶단 목표가 생겼습니다!

1. 사진 첨부(현지 생활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

<중국어 어학수업>



〈허페이 야생 동물원〉



〈회하로 보행자 거리(淮河路步行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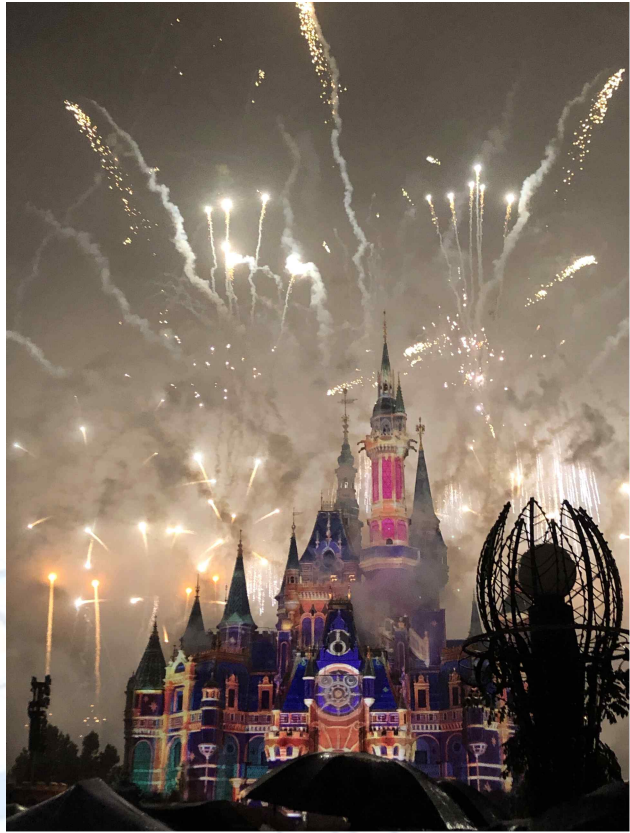
<문화체험-중국화 부채>



<황산>



〈상하이 동방명주&디즈니랜드〉



〈중국어 친구 즈앙이네 집에 놀러 간 날〉



중국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구분	단기어학연수생		
성명	홍xx	학번 / 학년	2022xxxx / 2학년
소속	(단과)대학 국제통상 학과		
연락처	E-mail		
파견 대학	안휘중의약대학교		
파견 기간	2023년 6월 26일 ~ 2023년 7월 16일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학생으로서 외국 대학에서 수학한 후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 1. 단기연수 체험기 1부
2. 기타 첨부 서류(사진)

2023년 7월 23일

파견자 : 홍xx (인)

순천향대학교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 단기어학연수 체험기※

1. 인적 사항(전공, 중국어 학습 기간 등)

국제통상학과 / 3년

1. 수학 내용(과목, 수업 내용, 수업 방법, 교수, 과제, 평가, 수업 준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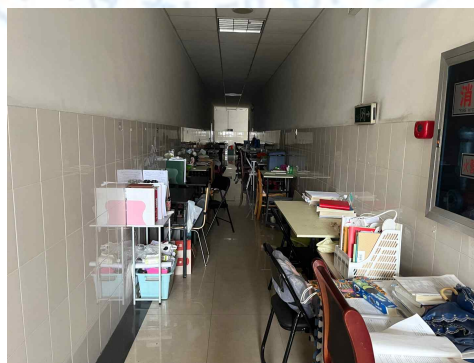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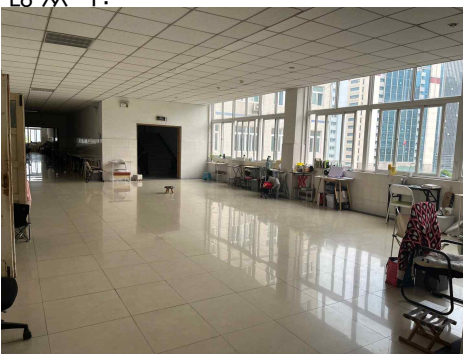
중국어 말하기가 주요 수업, 단어랑 대본을 보드에 적고 따라 말하다가 나중에 불러서 발표를 시킨다. 2인 1조로 시킬 때도 있다. / 과제는 한 번 내주었다. 책에 있는 거 문장 흐름 보고 적절한 단어를 넣으면 된다. 과제는 수업 첫날에 원하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대답에 따라 과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다. / 평가는 출석이랑 시험으로 봅니다. 시험은 중국어 기초만 좀 한다 하면 수월히 할 수 있다.

1. 교통(학교에서 주요 장소로의 교통, 시내 교통 등)

학생들이 주로 가는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로 가는 거리는 정당하다. 호텔과 한 15분 거리인데 대부분 학생들이 날이 더워서 그런지 택시를 타고 갔다 왔다 한다. 걸어갈 때는 아무래도 오토바이들이 많이 있는 편이라 한국보다는 조금 조심하면서 다녀야 한다. 교통은 경적소리가 많은 거 빼고는 한국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한다.

1. 학교 안내(수학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우리 대학과의 상이점, 학교 규모 및 시설, 면학 분위기 등)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대학교는 내가 알던 대학교 같지 않아서 놀랐다.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방은 5층인데 거기에는 복도에 다 책상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하는 장면은 몇 번 본 적은 있다. 하지만 날이 더운지 있는 학생들은 1,2명 밖에 없었다. 지금 수업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수업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시설은 많이 오래되어 보인 건물이었다. 화장실은 좋지 않았다.



1. 환경(위치, 학교 주변 환경, 기후 등)

숙소에서 걸어가면 15분. 주변에 갈만한 곳은 백화점. 여름이어서 선크림을 바르거나 양산을 써야함. 여름에 가는 거라면 무조건 손 선풍기 들고가는걸 추천한다. 한국보다 더 습하다.

1. 숙소(시설, 규칙, 분위기, 유의사항 등)

삼성 세탁기를 쓰다가 고장이 나서 엘지로 바뀌었다. 세탁기, 건조기 따로로 각각 2개씩 생겼다.

세제는 무료로 배치되어 있지만 섬유 유연제는 주지 않음으로 챙기거나 와서 사는 걸 추천함. 샴푸 배치가 되어 있지만 두피랑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챙겨오거나 중국에서 사야 된다. 시설은 좋음 방음은 그럭저럭이다. 침대에 기대고 있으면 옆방에 드라이하는 걸 들을 수 있는 정도이다. 맨 끝방을 써서 조용하게 지내는 편이다. 와이파이의 중국 번호가 있어야 하므로 없는 경우 호텔 직원분에게 부탁하면 된다. 하지만 원활히 와이파이가 돌아갈 보장은 없다. 끊기는 경우도 많다. 일주일에 수건 갈아주고 청소를 해준다. 매일 수건을 빨아서 쓰고 싶지 않으면 여분의 수건 한 장 정도는 챙기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소해 주실 때 종이가방에 아무것도 없는 채로 놓아져 있으면 버린다. 비닐이나 종이가방을 쓸 생각이라면 모와 나서 안에 무언가를 넣어 두는게 좋다. 한 며칠 된 물병이나 조금 남은 음식들도 버릴 수 있으니 미리 먹고 나가거나 챙겨놔야 한다.

1. 음식(학교 식당 이용, 학교 주변 식당 현황, 가격 등)

학교 식당은 가보지 않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거의 백화점 쪽에서 먹었다. 백화점 식당에서 학생 할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 물어보거나 학생 확인서 같은 걸 가져가는 걸 추천한다. 가격은 사람마다 다를 거 같다. 그래도 한 5000원~10000원 사이로 먹는다. 아침에 조식을 못 먹고 걸어서 학교를 갈 때 큰 횡당보도에서 만두랑 빵이랑 파는 곳이 있다. 만두가 비싼 게 2위안 이고 다른것들은 1위안 1.5위안 정도 하므로 배고프면 한두 개 사서 먹으면서 가면 배는 채워진다. 만두가 취향이 아니라면 2위안 참깨 찹쌀 빵 같은 거나 미니 바게트 빵 같은 빵도 나쁘지 않다. 음식은 자기가 어떤걸 먹느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질거 같다.



1.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제도(담당 부서, 담당자, 제공 시설 등)

학교 쪽 담당자 가이드(?) 분은 가이드 열심히 해주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주셔서 좋았다.

1. 소요 경비(현지 물가, 항공료, 공공 요금, 총 소요 경비 등)

현지 물가는 한국보다 싼 게 많고 비슷한 가격도 있는 거 같다. 상점마다 물건의 가격이 다르니 이곳저곳 가서 비교하면서 사면 싼 걸 살 수도 있다. 총 소요 경비는 72만 원이다. (중국에서

소비한 것만 계산) 기념품이나 한국에 들고 갈 것들은 한 10만 원정도고 중국에서 옷도 사서 그냥 한국에서 들고 온걸로 생활한다면 50만 원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다. 항공료 53만, 예치금 20만, 비자 발급 12만

1. 문화 체험 및 기타 개인 관광

오후에 하는 문화체험은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서예랑 가면 색칠 등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체험을 했습니다. 향료 만들기도 만들어서 한국에서 방에 걸어두고 쓰고 있습니다. 좋은 3일 다른 지역 가는 것들도 좋았습니다. 3일 동안 가는 것은 밥도 다 주고 여러 가지 보여주고 바깥입니다.

1. 출국 전 준비해야할 사항(반드시 소지해야할 것 등)

로밍, 여권, 공항에 들고 가지 말아야 할 것들만 알면 될 거 같다.

1. 귀국 준비 시 유의 사항

위챗에서 건강 그거 다시 써야 하는 걸 알아야 하고 귀국할 때 한국 큐코드도 해야 하니 위챗할 때 큐코드 같이 해놓으시다. 캐리어 무게 23kg 넘으면 안 되는데 한 1kg 정도는 봐주는 거 같습니다.

1. 건의 사항

없다.

1. 차기 단기연수 학생을 위한 제언

중국에서 우리가 거의 하는 것을 계산입니다. 단기 어학에서 중국어를 쓰고 싶다면 아니면 수월하게 중국에서 생활하고 싶다면 계산 쪽으로 중국어를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위챗페이가 안될 텐데 큐알코드가 위챗으로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는 종업원에게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대사들도 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길 쪽으로 공부합니다. 만약 택시를 탈거라면 여기 가고 싶다고, 외국인이라 한자를 읽지 못한다고(대부분 글씨가 작다고 말로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세워달라는 등말을 해야 새로운 장소로 가는 데에 불편함이 덜 할 겁니다. 길 물어보는 것도 알면 좋겠죠. 공부를 아마 중국에서 하기는 힘들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밖에서 많이 돌아다녀서 중국어 공부할 책을 따로 갖고 왔지만 쓰지를 못했습니다. 여유롭게 생활하는 사람이면 할 수 있을 겁니다.

1. 단기어학연수에 대한 소감 및 평가(*자세히 작성)

단기 어학 3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생활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달랐습니다. 공부는 뒷전이고 밖에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만큼 중국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하철도 타보고 영화관도 가보고 많은 곳을 돌아다녀 보고 경험했습니다. 비록 중국어 실력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생활이나 음식들을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중국의 좋은 점과 단점들도 알게 된 거 같습니다.

1. 사진 첨부(현지 생활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

